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김려화¹ · 김미영²

연변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¹,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²

Women Nurses'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 Historical Research Study

Jin, Li Hua¹ · Kim, Miyoung²

¹School of Nursing, Yanbian University

²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role of Korean women nurs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examine their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from 1910 to 1945. **Methods:** Nurses studied were women nurses referred to as Ganhowon, Ganhobu, Gyeonseupganhobu, Sanpa, and Josanbu at that time. Five participants such as descendents or relatives of nurses who participated in independence movements, were selected for interview to provide oral historical materials. An historical research approach was used and all of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period, region, and patter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Results:** Throughout the historical literature and oral historical materials, it was found that from 1914 to 1945, thirty-eight women nurses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types of independence activities such as mass hurrah demonstrations, raise the spirit of war, red cross activities, enlightenment movement and armed struggle to encourage the public to stand up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locally and abroad.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omen nurses, as enlightened women, endeavored to solve social issues with their autonomous volition, and these action can serve as meaningful evidence for enhancing the social status of nurses.

Key Words: Nurses, History of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서방열강들로부터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후 다음 해 조

선과 을사조약을 강행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 일제는 자원 수탈, 교육을 통한 동화, 언론 감시, 민족 산업에 대한 억압, 군수품 확보를 위한 국민총동원 등의 방식으로 조선의 민중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황폐화시켰다[1]. 일본이 자행한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민족적 저항을 야기하였고, 1919년 3·1운동은

주요어: 간호사, 간호 역사,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Kim, Miyo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6694, Fax: +82-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려화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 본 연구의 일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This study wa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Received: Jul 24, 2014 | Revised: Aug 18, 2014 | Accepted: Aug 20,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일본 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운동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 역시 독립운동의 대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단지 일제의 탄압이 자행되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2].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사회를 통해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전개되었는데, 그들의 활동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보면 개화기 초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교육운동에 이바지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에는 구국운동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저항은 보다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3]. 여성들은 만세 시위운동, 사회단체 결성을 통한 애국운동, 교육계몽운동, 전문직업운동, 노동운동, 종교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1].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제도에 짓눌려 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아오던 많은 여성들이 식민지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점차 주체적인 자각과 사회의식의 심화로 독립운동에 동참한 결과라 할 수 있다[3]. 즉, 여성사회의 근대화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인구의 증가는 여성을 독립운동에서 주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1].

이와 같이 여성들의 독립운동 형태가 다양한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인은 당대의 시각으로 보면 근대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최초로 여성전문교육을 시작한 간호학문은 일제 강점기에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근대여성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였다[3,4]. 당시 사회적 근대화와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1914년 산과규칙과 간호부규칙이 제정되면서 면허제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1916년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은 간호교육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면서 간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5,6].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는 우수한 간호인이 배출되었고 차츰 전문 직업단체도 결성되어[7] 간호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와 실천적 움직임도 보였다.

여성 간호인의 사회참여로 독립운동에 관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Hong[8]은 한국 간호교육의 과거를 소개하고 전망을 제시한 연구에서 일제시대 간호 전문단체인 조선간호부협회의 회원들이 간호부 활동뿐 아니라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으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Yi[9]는 일제시대 한국의 간호제도를 규명한 연구에서 1919년부터 1937년 사이에 민족운동, 여성운동에 참여한 간호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간호인의 활동내용이 통시적 관점으로 서술되었을 뿐, 그들이 활동한 지역적 차이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Yi의 다른 연구[10,11]에서는 간호인 한신광, 정종명의 일대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동안의 민족운동, 여성운동, 전문직 단체 활동 등의 참여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특정인물 한 명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일제 때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간호인의 역할을 시기와 활동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규명하고자 우선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고, 시기별, 지역별, 활동별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통한 활약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그들이 행한 독립운동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인 독립운동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고 시기별, 지역별 활동과 독립운동의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간호의 역사적 발전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시기별 독립운동을 파악한다.
-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지역별 독립운동을 파악한다.
-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활동유형별 독립운동을 파악하여 분류한다.

3. 용어정의

1) 일제 강점기 여성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이란 약소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식민지 해방운동이다[1]. 본 연구에서의 여성 독립운동이라 함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민족 여성들이 일제의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전개한 만세시위운동, 사회단체 결성을 통한 애국운동, 교육계몽운동, 전문직업운동, 노동운동, 종교운동 등을 포괄한다.

2) 일제 강점기의 여성 간호인

간호는 인간, 건강,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질병 치유와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으로[12] 간호인

은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다[13]. 본 연구에서의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은 문헌에서의 간호원, 간호부, 견습 간호부, 산파, 조산부로 명시된 자들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들의 시기별, 지역별, 활동별 독립운동을 파악하여 한국간호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한 역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문헌사료를 위한 대상자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여성 간호인으로서 간호원, 간호부, 견습 간호부, 산파, 조산부로 호칭되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간호원은 1903년 전문직 직업교육으로서의 간호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부터 불린 명칭으로[4] 이는 1914년 간호부규칙이 반포되면서 일본의 명칭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여 간호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불린다[14]. 견습 간호부는 정규적인 면허 인력은 아니었지만 당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실무를 분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조산부 다른 이름으로 산파는 일제 강점기에 제도적으로는 간호와 구별되었지만 5-7기분만 전후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15]. 따라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담당하였던 간호부와 견습 간호부, 산파, 조산부 모두를 간호인에 포함하였다.

구술사료를 위한 인터뷰 참여자는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여성 간호인의 가족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에 동의한 가족으로 총 5명과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각각 노순경의 자녀(참여자 1), 박원경의 자녀(참여자 2), 박자혜의 자부(참여자 3), 한신광의 자녀(참여자 4), 한신광의 조카(참여자 5)로 평균 연령은 79.6세였으며 69세와 87세 사이였다.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3명이었다. 처음에 여성 간호인의 가족을 수소문하였을 때 8명의 가족과 접촉이 가능하였으며, 이들 중 3명의 가족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양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인터뷰를 수락한 5명의 가족 중, 참여자 1은 노순경의 장녀로 연령은 87세였으며, 독립운동가 집안의 일원으로 어머니가 후방에서 다른 가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내용을 다루었다. 참여자 2는 박

원경의 양자로 연령은 75세였으며, 어머니의 군자금 모집활동과 병원에 소속된 간호인으로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지에 대해 증언해주었다. 참여자 3은 박자혜의 자부로 연령은 69세였으며, 남편이 생전에 기억하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일제강시 속에 독립운동을 수행하느라 어려운 고초를 겪었음을 전해주었다. 참여자 4는 한신광의 장남으로 연령은 80세였으며, 독립운동을 하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해주었고, 참여자 5는 한신광의 조카로 연령은 87세였으며 고모의 독립운동 참여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었다.

3.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문헌사료로서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인물정보인 「포상자 공적조서」,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인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자료집」,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동방전우」, 「폭도에 관한 편찬」,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판결문」, 「고등경찰요사」, 「일제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사상월보」, 「사상취보」, 「신한민보」,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조선문제자료총서」, 「제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자료한국독립운동」, 「매일신보」, 「독립」을 기본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된 「독립유공자공훈록」, 3·1여성동지회에서 발행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여성동지회 학술연구발표회 자료,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행된 「한국간호 100년」과 최초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1903년), 세브란스 간호학교(1906년), 대한의원(1907년)이 간호대학 전신인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발행된 자료, 일제강점기 주요매체인 「동아일보」를 참조하였다.

구술사료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독립운동가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확인이 된 8명의 가족 연락처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한 독립운동가 가족은 5명으로 독립운동가의 자녀, 자부, 조카이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자택이나 대한간호협회 회의실 등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40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구술사료는 문헌사료의 결락부분을 보완하고 여성 간호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동안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해 수집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은 시기와 지역, 활동에 따른 사실 중심으로 일차적 자료와 이차적 자료 모두를 이용하였다. 구술자료는 시간에 따른 사건의 진실성을 문헌자료와 비교·검토하며 분석하였다. 구술자료에 참여한 가족들은 자신의 사실 증언이 명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문헌자료 사용은 이미 공개가 허락된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술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의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외로 사용할 것이고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이해 하에 구두동의를 받았다.

연구결과

1. 시기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을 시점으로 일제의 무단통치가 강행되면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침체에 들어갔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애국투사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16]. 이들 중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1914년 임수명이 국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투사 남편인 신활균의 국내 비밀연락을 도우면서 시작되었다[A1,A2]. 또한 박원경은 1915년부터 독립투사 김태연 목사의 지도 아래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A3,A4]. 이렇듯 여성 간호인들은 남성 독립지사들과의 교류 속에서 3·1운동 이전부터 이미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한민족이 거족적으로 펼친 3·1운동을 계기로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도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훗날 정종명과 강기덕이 3·1운동 당시를 떠올리며 작성한 글과 독립운동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은희가 완성한 문헌을 통해 여성 간호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여 고초를 당하는 내용이 입증되고 있다.

정종명은 「저 놀라운 기미운동이 일조에 일어나자 그때 마침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자료 중이던 이갑성 씨의 모종 중대한 서류를 간호부인 내가 맡아두었다는 혐의로나는 경찰서에 잡히어 단단히 고상을 하였다」고 회억하였고[A5]

「기생만세사건의 연루자로 해주도립 자혜병원 간호부 김은순이 걸려들었다. 사실상 기생 만세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중국이나 만주 방면에서 밀입국한 독립운동 연락원들의 여비 등을 마련해 주는 자금모집 관계에 참여했던 것이다. <중략> 경찰은 4월 7일 김은순의 가택을 수색하고, 그녀를 즉각 체포하여 해주 감옥에 구속하였다. 그녀에게도 역시 사나운 체찍과 코로 물을 먹이고, 보폭에 달고, 치고 하는 고문을 하였다. <중략> 아무리 혹독한 악형이 가해져도 은순은, “사람이 한번 죽지, 두 번 죽으랴.”하는 마음으로 영영 실토하지 않았다」고 독립운동 생존자들은 증언하였다[A6].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성완, 이정숙은 한낱한시에 거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참가자를 준비시켰고[A7] 이성완, 채계복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항일구국 사상을 선전하였다[A3].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아수[A8], 이정숙[A3], 탁명숙[A8] 등 여성 간호인들도 만세시위 행렬에 직접 동참하였다. 박자혜는 간우회의 조산부, 간호부를 규합하여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에서 힘찬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일제로부터 얼마나 고초를 당하였는지 가족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어떤 때 집에 와보면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의례적으로 찾아가는 게 종로경찰서였다고 그래요. 우리 너머 자기 어머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고문을 받았는지. 그거는 나이가 먹고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됐는지 엄마는 얼굴이 퍼렇게 멍들고 막 붓고 그래가지고 있대요. 들창너머 봤을 때. 그러면 순사가 집으로 가라고 하고 나와 가지고. 그래도 애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런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랐다고(참여자3, 20080410).

3·1운동은 서울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돼서 5월말까지 각 지역의 한국인들이 파상적으로 독립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17].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만세운동도 시기적으로 지역에 따라 3월 5일 박원경이 재령에서[A3,A4], 3월 10일 김안순과 김화순이 광주에서[A9], 3월 18일 한신광과 박덕례가 진주에서[A3,A6]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때 아버지가 주모자로 진주에서 모의하고 할 때 고모님은 아버지 동생이니까 연결이 되어서 하고 어머니한테도 통지가 가지고서는 여자들 가운데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서울에서는 3월 1일인데 서울에 와 있던 동지 한사람이 독립선언문을 비밀리에 가지고 차도 못타고 걸어서는 가다가 중간에 차를 타다가 이렇게 진주까지 내려가서 모의한 것이 3월 10일 경이나 모의를 해가지고 3월 18일에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사방에 연락하고 인쇄물 만들고 뼈라를 뿌리고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서는 독립만세 부르고(참여자5, 20100313).

3·1운동 직후에 여성들은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중순 이정숙은 3·1운동 후 최초의 여성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였는데, 그 단체를 이성완은 혈성단부인회이라 명명하였다[A3]. 1919년 6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조직된 후 이정숙의 권유 하에 함께 모임을 갖고 활동하던 동료 간호부 김여운, 김은도, 김효순, 박덕혜, 박봉남, 박옥신, 이도신, 장옥순, 황혜수도 입회하였다[A7]. 1919년 9월 국권확장과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여건이 개선되고 재조직되면서 윤진수[A3,A10], 이정숙[A3,A10,A11], 이성완[A3], 김태복은[A10] 임원이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애국부인회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이 단체의 여성 간호인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여성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 간호인의 개인별 독립운동 참여도 계속되었는데 1919년 9월 재등 총독 저격사건 발생 시 탁명숙은 강우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A10] 11월 정종명[A5], 최효신[A10]은 의친왕 이강의 탈출사건에 동조하였으며, 12월 2일 김효순, 박덕혜, 노순경, 이도신은 서울 시민들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독립의 염원을 표출하였다[A12]. 이밖에도 박자혜[A13], 임수명[A1,A2]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부터 여성의 독립운동은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결성한 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체계복 등 신교육을 받은 애국여성들의 가세로 1920년 이후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독립전쟁을 대비한 여성 간호인 50명이 양성되

었다[A14]. 이와 같이 1920년대 초반에서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표면적으로는 활발한 듯 보였으나 인원의 충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기 간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조선간호부회가 결성되어 회보를 발간하는 등 전문직 특성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표면적으로는 상반된다[7]. 이는 여성 간호인들이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에 한국간호의 존재를 알리는 전문직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려 하였거나 독립운동이 전문직 직업 활동의 배일에 가려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간호부회 총회에 조선 간호부가 처음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그 후 일본과 별개인 단체로 가입하려는 노력이 그 예가 되겠다[7]. 간호현장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박자혜는 산파로 일하면서 독립운동가 남편 신채호를 지원하였고[A15] 박원경은 일본 형사들에게 쫓기는 부인들을 병원에 숨겨주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보살폈다[A4]. 이밖에도 노순경은 일가친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노백린, 박성환 가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A16]. 여성 간호인들이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산파활동과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가족들의 구술과 지인들의 글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식으로는 아주 불만스러웠어요. 왜 불만스러우냐면 사회사업 일도 하고 외부의 일한다고 아침에 눈 뜨면 안계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신단말이야. 거기다가 간호사적인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사업 하면서 경제생활도 한다는 게 산파가 아니겠습니까(참여자4, 20090921).

일제 운동에서 손을 떼고 가회동 우거에서 쪼들리는 생활에 얽매어 지내며 때때로는 산파로의 천직을 가지고 출산부들의 괴로운 동무가 되어주며 또 때때로는 비판사에 나와(정종명) 여사의 독특한 신속한 설전으로 대기업을 토하곤 있다 한다. 그런데 여사는 속으로 무엇을 기획함이 있는지 간도를 자주 왕래한다고 한다[A17].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운동은 탄압을 받고 독립운동 참여 세력은 해외의 항일무장단체 혹은 지하화된 항일세력으로 편입되거나 일제의 감시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계몽활동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유학중이던 서광옥은 중국군에 종군하였

고[A18] 최선화는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에 가입하였다[A19]. 소련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박혜경과 금촌춘자는 일본군의 기밀을 유출하다 각각 1939년, 1940년에 체포되었다[A20, A21]. 또한 최선화는 1940년 한국독립당에 참가하여 임시정부의 외교활동과 광복군 활동을 적극 뒷바라지 하였으며[A19] 1943년에는 중경에서 한국애국부인회 사업에 주력하였다[A22]. 1945년 이애나는 미국군에 입대하였다[A23]. 이 시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1937년 한신광이 언론을 통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A24] 외에는 전부 군사 활동과 연관되는데 이는 만주사변 이후 더욱 폭압적으로 전환한 일제의 통치 하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폭은 극히 좁혀 있었고[10], 특히 여성 간호인들의 경우 전문직 여성으로 일제의 감시 하에 있었으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아울러 비밀리에 수행한 활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실재를 제대로 추적하기에 곤란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인 19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19년 3·1운동을 거쳐 해방이 이루어지는 1945년까지 활동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는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에는 여성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 간호인의 경우 전문직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보살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과 제약이 본격화되면서 여성 간호인들은 특히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독립운동 활동에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주로 국내에서 전개되었다.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간호인 중에도 김응숙, 서광옥, 최선화, 이애나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은 서울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에서의 독립운동은 주로 도청소재지와 항구도시에서 이루어졌다. 김오선, 김태복, 박혜경, 한간호부는 평안남도 도청 평양에서 적십자단원 및 정보원으로 활동하였고[A20, A25, A26] 박원경, 김은순은 황해도 도청 해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A4, A6]. 김안순, 김화순은 전라남도 도청 광주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A9] 박덕례, 한신광은 경상남도 도청 진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A3, A6] 금촌춘자 역시 경상남도 도청 부산에서 일본군의 첩보를 수집하여 소련군에게 알렸다[A21]. 항구도시에서의 독립운동은 황해도 재령에서 박원경이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A3], 함경남도 정평과 원산에서 이성완, 이성숙, 탁명숙이 여성교육에 힘썼고[A27, A28], 강원도 강릉에서 함귀래가 계몽운동을 통해 농민을 각성시켰으며[A29], 박옥신이 순천에서 여성의 문맹퇴치 및 인신매매 방지에 앞장선 것이 있다[A30].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인 간호교육 현장과 간호실무 현상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농촌사회에 관심을 가진 1930년대의 민중계몽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국내 여성의 독립운동이 신여성 중심으로 도시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기인한다.

한편으로 김응숙, 금촌춘자, 박자혜, 서광옥, 이애나, 임수명, 채계복, 최선화는 국외에서 활동하였으며, 노령, 만주, 중국, 미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이 중국을 벗어나 미주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령은 조선후기부터 한민족들의 이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강력한 의병활동의 기지였다. 한인사회에서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지만 러시아혁명 후 한인 여성들의 지위가 개선되어 3·1운동 이후 노령 각지에서의 독립운동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 시기 애국부인회는 지회를 발전시키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 4월 일본군의 공격으로 노령 지역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기반이 붕괴되면서 1940년 금촌춘자가 소련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기까지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확인되지 않는다[A21]. 즉 일제의 본격적인 군사 작전이 확대되면서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일부 항일세력은 소련군으로 편입되었음을 나타낸다.

만주는 1910년대부터 독립군 기지 건설이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곳의 민족주의 운동 전개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은 항일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만주에서는 구국교육 운동과 더불어 무장 항일운동이 주로 전개되었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활을 건 저항을 하였다. 국내에서 비밀연락을 수행하던 임수명도 만주로 이주하여 직접 무장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A1, A2]. 1920, 1930년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펼쳐지나 그 당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확인할 수 없다.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운동은 1911년 이후에 시작되어 1910~1930년대는 상해, 남경,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경, 광주, 천진, 무한을 거점으로 삼아 전개되었다. 만세운동과 태업을 주도하던 박자혜도 일제의 통치를 피하여 중국으로 떠난 후 그곳에서 신채호를 만나 혼인하고 독립운동을 도왔다[A13, A31]. 서광옥은 중국군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하던 중 독립운동가 이병훈과 인연을 맺고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A1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활동한 최선화 또한 애국지사 양우조의 아내이다[A19]. 이와 같이 대다수 여성들은 독립투사들의 가족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박자혜는 고인이 된 신채호를 떠나보내면서 쓴 글에서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당신과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략>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경에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 평생을 가치하지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략> 당신은 늘 말씀하셨지요.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 미리 그렇게 알고 마음에 섭섭히 생각 말라고. 아무 철을 모르는 어린 생각에도 당신 얼굴에 나타나는 심각한 표정에 압도되어 과연 내 남편은 한 가정보다도 더 큰 무엇을 하여 싸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 무릎 앞에 엎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A32]

당시 여성 간호인들은 실제로 가정을 책임지고 독립운동까지 하면서 더욱 고달픈 생활을 하였으나 여성 간호인들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공적을 인정받기까지 더욱 오랜 시일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내 지역의 여성들이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주 지역의 여성의 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이민 여성사회를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조국광복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활동은 여성의 의식을 제고하고, 임정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해외동포를 구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주 한인사회의 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여성 간호인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1945년 미국 나성에서 이애나가 비행 간호 견습생으로 병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A23] 여성 간호인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원정길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으로 활동한 지역은 국내의 도시와 항구 지역이었으며, 국외에서는 노령, 만주, 중국, 미국 지역 등이었다. 그 당시 일부 여성 간호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신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해외로 떠났으며 독립투사들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와 국외를 왔다 갔다 하며 독립운동은 물론 가정을 책임지는 이중생활을 하였다.

3.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활동 유형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3·1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20명이었다. 3·1독립 만세운동은 비폭력적인 평화 선언과 시위로 전 세계에 조선의 자유와 독립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성완, 이정숙은 여성들이 단합하여 평화적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앞장섰고[A7] 김은순, 정종명은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주도인물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A5, A6]. 이성완, 채계복은 정신 여학교에서[A3], 박자혜는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에서[A31]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항일구국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김안순, 김화순, 김효순, 노순경, 박덕혜, 박덕례, 박원경, 이아수, 이도신, 이성숙, 탁명숙, 한신광은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A3, A6, A8, A9, A12]. 장윤희는 민족의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성독립비밀단>을 배포하였고[A33] 김오선은 일제의 감시로부터 독립운동을 보호하였으며[A7] 박자혜는 일본인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파업을 강행하였다[A31]. 이 밖에도 김오선은 일제로부터 주도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대문부인병원으로의 위장 입원을 도와주었다[A7]. 이와 같이 여성 간호인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으로 누구보다 먼저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파악해 3·1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여성 간호인이 주로 추진한 것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과 적십자 활동이다. 군자금 모집은 독립투사들의 활동경비나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는 혈맥이었다. 여성 간호인들은 독립투사들과의 연계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활동양상은 가족들과 생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장로님의 아버지는 구한말 백령도 수비사령관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박원경 장로님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중략>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았고 김태

연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거기 다 보내셨어요. <중략> 근데 거기에 보내기만 보내고 받았다거나 안 받았다거나 연락도 없대요. 그리고 김태연 목사님은 계속 보내라고만 그러시고(참여자 2, 20080526).

상해 임시정부에서 청년외교단 총무 이병철, 임창준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통합하고 군자금 모집을 위탁하자 김여운, 김은도, 김태복, 김효순, 박덕혜, 박봉남, 박옥신, 윤진수, 이도신, 이성완, 이정숙, 장옥순, 황혜수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주요 활동원으로 매달 의연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A3, A7, A10, A11, A34). 체계복은 노령에서 군자금 모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부인독립회의 임원인 동시에 급진적 비밀결사단체인 철혈광복단의 여자단원으로 군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탈취사건에 참여하였다(A14). 김응숙은 대한학생광복단에 가입하여 선전문을 작성하고 자본가를 설득하여 기부금을 내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A35). 또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이 공식화되자 최선화는 더욱 조직적으로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애국부인회의 재건을 추진하였다(A19). 여성 간호인은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를 조직하고 각 지방에 지회를 확대하여 애국적 여성의 독립운동 결함에 힘썼다. 이밖에도 여성 간호인은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종명은 산과 수입으로 북풍회 회원들의 생활을 책임졌고(A17) 박자혜와 노순경은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활동경비를 제공하였다(A15, A16). 이로 보아 여성 간호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간호인의 활동에 대해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남긴 글과 가족들이 구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중명)여사는 모든 사회운동자의 보모였다. 누구나 회관에서 앓는다 하면 산파를 하여서 겨우 수입된 1, 2원 돈을 쥐고 가서 약도 사다 다려주고 미음도 써주고, 누가 검거되었다면 총총한 걸음을 구류된 곳에 옮기어 수지고 의복이고 음식이고 차입하여 주기에 분주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죽은 노서아 극동대학 교수 채그리고리 씨도 일면식조차 없건만 친절히 찾아와 주는 정여사의 후의에 감격하여 울었던 사람 중의 하나다(A17).

아버지와 20살에 결혼했다. 결혼 이후에는 간호활동은

하지는 않고 <중략>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희생되어야 해. 가정이 희생되지 아니면 못해. <중략> 우리 클 때도 보면 꼭 마포에서 새우젓 사다가 소금도 배추고 다 배급하는 거야.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렇게 남모르게 배분하고 그러더라고. 독립운동 가족들을 보면 다들 생활이 어려운데 그나마 다들 가리키고 다 최고학부 보내고 사촌들 다 챙기고. 그게 가족사에서 가장 대단한 것 같아(참여자1, 20110315).

적십자 활동은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인력 모집을 목적으로 상해의 대한적십자회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적십자자는 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흡수되어 적십자장이며 여성 간호인인 이정숙, 윤진수, 그리고 박옥신의 노력으로 전국에 지부가 결성되면서 발전하였다(A3, A10). 김태복은 동대문병원 대표로 회원들의 규합을 도왔다(A10). 평양 기흥병원 김오선도 김태복과 함께 적십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거된다(A25). 최효신은 의친왕 이강의 간호임무를 맡고 탈출에 참여하였고(A10) 박원경은 순국한 애국지사의 가족들을 몰살양면으로 도와주었다(A4). 국외에서는 노령에서 미국 적십자회의 원조를 받아 간호부 양성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체계복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간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A14). 또한 서광옥은 전쟁터에서 헌신적으로 상병자를 치료하였고(A18) 이애나는 미국에서 비행 간호 견습생의 신분으로 입대하였다(A23). 여성 간호인들은 직업적 특성을 발휘하여 언제든지 투쟁의 일선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전투 준비를 위한 간호 인력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직접 일선에서 상병자 치료에 나섰던 서광옥 부부의 경험은 독립활동가들의 증언을 수록한 자료집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은 전쟁 시기 적십자 활동은 참으로 목숨을 내건 사투라고 표현하였다.

전쟁 나니까 중국정부에서 동원이 된 거예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졸업을 했거나 말았거나 전부 동원이 되어서 <중략>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냥 양자강이 피로 반이 빨갓답니다.(부상병들을) 그냥 늘어놓고 우리가 그때 가서 팔 부러진 거면 봐서 팔을 이렇게 큰 수술은 못하고 응급 치료같이 그렇게 해주는 일을 하고 <중략> 죽을 뻔도 많이 했죠. 일본 비행기가 계림에 있는 우리 부대에 폭탄을 터뜨려서 아주 많이 불탔어요. <중략> 그때 우리는 내내 중국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A23).

여성 간호인들은 일제 치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민중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 간호인의 민중계몽운동 참여는 각각 여성운동에 8명, 종교운동에 2명, 농촌계몽운동에 2명으로 나타났다. 탁명숙은 유지인사들의 도움으로 동명여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성완, 이성숙은 청년여성들이 사회현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강연회를 개최하였다[A25, A26].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가 설립된 후 박원경[A3], 김태복은[A36]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기독교종교를 대표로 하는 여성들의 활동은 계몽적 여성교육 활동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편, 1922년 정종명은 신진 여성들과 함께 여성교육의 대중적 확대를 위한 여자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였다[A5, A37]. 정종명은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하고[A5, A38] 순회강연, 토론강좌, 언론을 통해 농민여성과 노동여성의 정신을 각성하고 사회 여론을 환기하였다[A39]. 또한 북풍회, 정우회, 신간회의 설립에도 힘을 보탰으며[A40] 이정숙은 1925년 경성여자청년회의 결성을 주도하여 지원하였다[A41]. 1927년 정종명[A40, A42], 김태복[A43], 한신광은[A3] 근우회에 참여하여 여성들의 단결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여성운동을 추진하였다. 정종명은 집행위원장으로 조직의 확장에 힘을 기울였고, 한신광은 서울 여학생 궤기를 추진하고[A3] 여성의 경제적 각성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으며[A44], 박옥신은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인신매매방지에 앞장섰다[A30]. 이처럼 여성 간호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인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체 여성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여성 간호인들은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독립 인사들의 비밀 접촉을 도와주고 일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4년 임수명은 업무 현장에서 독립운동가 남편을 알게 되어 결혼하였다. 이후 그는 북경으로 망명한 부군과 비밀문서 연락 등의 활동을 도왔으며[A1, A2], 1919년 김태복은 병 때문에 입원 중이던 김석황의 설득을 받고 의용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A45]. 탁명숙은 재등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의 신변안전을 보호하였다[A10]. 1926년 박자혜는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의거 당시, 사전에 위치·지리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A13]. 박혜경은 평양 부근 일본군의 비행장, 무기제조 공장의 위치 및 인근 시설에 대한 기밀을 소련군에게 알린 죄목으로 1939년 구속되었다[A20]. 소련에서 첩보훈련을 받은 금춘춘자는 부산에서 일본군의 군사물품 수송정황을 수

집하던 중 1940년에 체포되었다[A21]. 1944년 한 간호부는 학병들의 의거를 위해 일본장교의 병실을 드나들며 군사정보를 알아내거나 입원한 병사를 통하여 각 부대와의 조직을 연결시켜 주었다[A26]. 이처럼 여성 간호인은 다양한 인물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병원 내에서도 독립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을 도왔고, 일제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독립지사들의 활동을 도왔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독립만세운동과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중계몽운동, 무장투쟁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1). 특히 민중계몽운동은 여성, 노동자,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현실을 알리고 민족의 힘을 기르고자 여성운동과 종교운동, 농촌계몽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직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적십자활동과 무장투쟁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이 민족의 수난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항전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은 식민지하 최대의 사건이자 최고의 민족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한국 여성들은 거족적이면서도 민중적인 3.1 독립만세운동에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였고 이러한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이후 여성의식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8]는 측면에서 간호학계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민족의 궤기를 위한 독립운동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 간호인은 38명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독립운동을 조명한 Yi의 연구[9]에서는 7명의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근대 의료가 도입된 1885년부터 1945년까지 간호사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을 기술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19]에서는 24명의 여성 간호인이 항일구국운동 간호사 열전에서 집중 조명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숫자적 차이는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지만 참고자료가 폭넓게 고찰됨에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o 등[18]은 식민지 시대의 전문직 여성의 사회활동을 의료계, 교육계, 언론계, 예술계로 분류하고 의료계에 속하는 간호부들이 여성과 아동의 보건을 위해

Table 1. Patterns of Women Nurses'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Patterns	Female nurse
1910s	Raise the spirit of war	Park Won-Kyung
	Armed struggle	Lim Soo-Myung
Around 1919	Mass hurrah demonstrations	Kim An-Soon, Kim Oh-Sun, Kim On-Soon, Kim Hyo-Soon, Kim Hwa-Soon, Roh Soon-Kyung, Park Duk-Rye, Park Duk-Hye, Park Won-Kyung, Park Ja-Hye, Lee Do-Sin, Lee Sung-Sook, Lee Sung-Wan, Lee A-Soo, Lee Jeong-Sook, Chang Yune-Hee, Chung Chong-Myung, Chae Kye-Bok, Tak Myung-Sook, Han Shin-Gwang
	Raise the spirit of war	Kim Yeo-Un, Kim En-Do, Kim Tae-Bok, Kim Hyo-Soon, Park Duk-Hye, Park Bong-Nam, Park Ok-Sin, Park Won-Kyung, Yune Jin-Su, Lee Do-Sin, Lee Sung-Wan, Lee Jeong-Sook, Chang Ok-Soon, Chae Kye-Bok, Hwang Hye-Su
	Red cross activities	Kim Tae-Bok, Park Duk-Hye, Park Ok-Sin, Yune Jin-Su, Lee Jeong-Sook, Chae Kye-Bok, Choi Hyo-Shin
	Armed struggle	Chung Chong-Myung, Tak Myung-Sook
1920s- mid 1930s	Raise the spirit of war	Kim Eung-Sook, Roh Soon-Kyung, Park Ja-Hye, Chung Chong-Myung
	Red cross activities	Kim Oh-Sun, Kim Tae-Bok, Park Won-Kyung
	Women's movement	Kim Tae-Bok, Park Won-Kyung, Lee Sung-Wan, Lee Sung-Sook, Lee Jeong-Sook, Chung Chong-Myung, Tak Myung-Sook, Han Shin-Gwang
	Religious activity	Kim Tae-Bok, Park Won-Kyung
	Enlightenment movement for rural communities	Chung Chong-Myung, Ham Gui-Rae
	Armed struggle	Kim Tae-Bok, Park Ja-Hye
Sino-Japanese War-1945	Raise the spirit of war	Choi Sun-Hwa
	Red cross activities	Park Won-Kyung, Seo Kwang-Ok, Lee Ae-Na
	Women's movement	Han Shin-Gwang
	Armed struggle	Kimchon Choon-Ja, Park Hye-Kyung, Nurse Han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간호인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식민통치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간호인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간호인의 사회적 위상을 재조명하게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성 간호인들의 시기별에 따른 참여 활동을 살펴보면, 여성 간호인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왔다.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1914년부터 시작되어 3·1운동을 전후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일제가 패망하

는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Chung의 연구[2]에서 한국 여성들이 3·1운동부터 보다 명확한 민족적 자각을 갖고 쫓겨하였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독립운동 활동 시기에 있어서 Yi의 글[1]에서는 1919년부터 1936년으로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 시기를 1914년부터 1945년까지로 폭넓게 고찰하였다. 한편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19]에서는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참여 시기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활동을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기간으로 제시하

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인의 활동을 출현한 시기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시각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간호인은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우선 이들의 독립운동은 국내, 국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성 간호인은 주로 국내에서 서울, 도청 소재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밖에도 노령, 만주, 중국 관내, 미주 등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이 한두 명밖에 없어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이 국내·외를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특히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여성 간호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양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양상은 대체로 한민족 전체가 가족적으로 결기하였던 독립만세 운동에 이어 독립자금 후원과 적십자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간호인들은 대다수가 국내에서 활동한 점에 미루어 일제 하에서 간접적인 참여가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명의 간호인들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검거된 여성 471명 중 간호인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²⁾과는 다른 결과로 여성 간호인은 독립운동에 소극적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반증하는 귀중한 근거 자료이다. 한편으로 일인 병원장이 박자혜를 비롯한 간호인의 보석에 노력하였다는 가족의 증언²⁰⁾으로부터 숙련된 간호인이 부족하고 상병자가 속출했을 시기에 많은 여성 간호인들이 검거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적십자 활동을 한 간호인들은 전문직 특성을 살려 언제든지 전쟁의 일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간호인들은 적진에서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신분을 이용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여성 간호인들은 여성운동, 종교운동,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일제 하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였다.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논함에 있어 현재까지 그 유형에 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활동을 독립만세운동과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

중계몽운동, 무장투쟁활동으로 분류한 의의와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활동유형별 독립운동에 있어서 간호인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상병자 치료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장 입원시키거나 일제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인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성 간호인들은 주로 서울과 평양에 위치한 동대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자혜병원, 조선총독부 부속병원, 기흥병원에 소속되어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적십자활동으로 여성들에게 간호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거나 전투준비를 위한 간호인력 양성을 도왔다. 반면에 여성 간호인이 간호현장이 아닌 곳에서 참여한 활동 내용을 보면 3·1만세운동뿐 아니라 군자금 모으는 일, 독립운동가 가족을 보살피는 일, 여성의 문맹퇴치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간호인으로 주로 산과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거나 독립운동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었으며,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이 드물어서 여성 간호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여성들의 교육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인이라는 직업은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외에서 활동을 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연구로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의 자료는 공훈전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3·1여성동지회에서 발간한 자료, 주요매체인 매일신보, 동아일보를 바탕으로 여성 간호인이라는 특정 주제로 제한하여 한정된 사료만으로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의 기준에 부합되는 독립운동사 내지 독립운동가를 전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간호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일제강점기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존하여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던 관계로 독립운동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행히 일부 독립운동가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방증해주어 소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는 일제 강점기에 드물게 전문직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인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제의 통치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여성 간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역사적인 고증이 미약한 현실에서 여성 간호인들이 국내·외적으로, 병원 안과 밖에서 독립운동에 참

여함으로써 후대 간호사들에게 국가의 주요문제에 대처하고 선도하는 여성 간호인으로서의 경험과 책임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한국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한국간호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이용하여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 38명의 여성 간호인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민족의 쉼기를 위한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과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중계몽운동, 무장투쟁활동 등 주로 여성 간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간호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성 간호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간호인으로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언을 하면,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역사적 문헌의 고찰과 심층적 자료를 찾아 독립운동의 시기 및 지역, 활동 계기 등을 중심으로 심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간호인의 사회적 역할을 밝히고, 사회활동과 간호 전문직 특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Lecture about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2nd ed, Seoul: Hanul; 2007. p. 30-174.
2. Chung YS. A study on the nationalist movement by Korean women: Focusing 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Asian Women*, 1971;10:297-330.
3. Cho H, Choi SK, Lee BY, Cheon MR, Ahn YS, Park JS. A patriot of women in Korean history (II) 1876~1919. *Women's Studies Review*. 1991;8:11-92.
4. Ok SD. Identities of early modern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 in Korea: Margaret J. Edmunds and the first nurses' training school in Korea, 1903-1908. *Korean Church and History*. 2012;36:185-225.
5. Ordin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 108.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4 July 4;Sect. 01. Japanese.
6. Ordin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 35.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6 April 25;Sect. 02. Japanese.
7. Korean Nursing Association. 70 annals of Korean Nursing Association (1923-1993). Seoul: Korean Nursing Association; 1997. p. 39-43.
8. Hong SY. Commemorative speech of retirement under age limit Korean nursing education in the past & prospect. *The Korean Nurse*. 1981;20(1):31-51.
9. Yi GM. A study on Korean nurs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p. 148-155.
10. Yi GM. The life and works of Han Shin Gwang: A midwife and nurse of Korean modern time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06;15(1):107-119.
11. Yi GM. Jeong Jongmyung, a Korean feminist and midwif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2;21(3):551-592.
12. Korean Academy of Nursing.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n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1996. Nursing; p. 30.
13.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tandard Dictionary [Internet].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Date unknown [cited 2008 May 15]. Available from: <http://www.korean.go.kr>
14. Ordin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 154.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4 October 13;Sect. 01. Japanese.
15. Special center of hospital. *Korean Daily News*, 1914 February 6;Sect. 03.
16. Seo JS.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orea-Japan History Collaborative Research Report*. 2005;5:18-85.
1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eou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77. vol. 2. p. 60-91.
18. Cho SK, Lee BY, Shin YS, Ahn YS. A portrait of women in Korean History III: 1919~1945. *Women's Studies Review*. 1993;10:11-139.
19. Korean Nurses Association. National salvation movement.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p. 69-137.
20. Lee, DeokNam (Wangjing, Beijing). Conversation with: Lihua Jin(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April 10.

APPENDIX

- A1.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Soo-Myung Lim, In: Records of meritorious people in the independence. Seoul: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1988, vol. 4, p. 858.
- A2. Mother and daughter suicide due to grief. The Dong-A Ilbo, 1924 November 4;Sect. 02.
- A3. 3-1 Female Comrade General Assembly.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independence movement. Seoul: 3-1 Female Comrade General Assembly; 1980, p. 198-633.
- A4. Park, GilJun (Yonsei University, Seoul). Conversation with: Lihua Jin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2008 May 26.
- A5. Jeong JM. Poverty, struggle, and lonely lifetime. Samchuly. 1929;2:35-50.
- A6. Choi EH. The biography of Korean women movement in early modern period. Seoul: Jeongemsa; 1985, p. 254-261.
- A7. Chang Sun-Heui Memorial Association, Forever flower garden: Life story of Chang Sun-Heui. Seoul: Person Research Institute; 1985, p. 118-133.
- A8. Conclusion of preliminary hearing: Kim Hyong-Kee etc., Incheon: Kyungsung District Court; 1919, Japanese.
- A9. Sentencing: Park Ae-Soon etc., Gwangju: Gwangju District Court; 1919, Japanese.
- A10. Gyeongsangbuk-do Office of Police, Ultimate case of Higher Police. Place Unknown: Gyeongsangbuk-do Office of Police; 1934, p. 190-259, Japanese.
- A11. Sentencing: Lee Byung-Chul etc., Daegu: Daegu Court of Review; 1920, Japanese.
- A12. Sentencing: Park Deok-Hey etc., Incheon: Kyungsung District Court; 1919, Japanese.
- A13.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Ja-Hey Park, In: Records of meritorious people in the independence. Seoul: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1990, vol. 7, p. 449-450.
- A14. Ban BY. Korean Women's Anti-Japanese Activities in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1909-1920.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2005;23:87-130.
- A15. Husband greet the hard New Year in prison. Singajung. 1934;2(1):102-104.
- A16. Park, HyunJa (Chuncheon, Gangwon-do). Conversation with: Sunghye Park (Korean Nursing Association, Seoul). 2011 March 15.
- A17. Whoever is curious. Samchuly. 1936;8(11):178-182.
- A18.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eritorious people's testimony in the independence. Seou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02, vol. 2, p. 253-336.
- A19.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Sun-Hwa Choi, In: Records of meritorious people in the independence. Seoul: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1988, vol. 5, p. 803.
- A20. The current situation and crime. Ideology magazine. 1939; 21:64-151, Japanese.
- A21. Incident on communist ideology in Korea. Ideology magazine. 1943;Suppl 1:189-196, Japanese.
- A22. Choi SJ. Declaration of the reconstruction Korean Women's Patriotic Association, The New Korea, 1943 June 03;Sect. 02.
- A23. Nurse Ae-Na Lee. Independence, 1945 March 28;Sect. 02.
- A24. Women saint as far as I know. The Dong-A Ilbo, 1937 July 22;Sect. 02.
- A25. Seoul metropolitan police roundup of two nurse. The Dong-A Ilbo, 1922 January 30;Sect. 03.
- A26.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eou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77, vol. 9, p. 837-849.
- A27. Chongpyong Youth Forum. The Dong-A Ilbo, 1920 June 18;Sect. 04.
- A28. Establishment of DongMyung Girl's School. The Dong-A Ilbo, 1920 May 7;Sect. 03.
- A29. Instigation of farmers. Korean Daily News, 1935 August 24;Sect. 01.
- A30. Foundation of Keunwoo Suncheon Branch. The Dong-A Ilbo, 1929 June 17;Sect. 02.
- A31. Lee HH, Park Ja-Hye participate in the slowdown for anti-Japanese. Women Donga. 1971;3 Suppl 1:54-56.
- A32. Park JH. Offer the letter the spirit of the departed husband Danjae. Chogwang. 1936;2(3):218-219.
- A33. Sentencing: Park In-Seok etc., Incheon: Kyungsung District Court; 1920, Japanese.
- A34. Sentencing: Lee IL etc., Incheon: Kyungsung District Court; 1919, Japanese.
- A35. Student Independence Organization. The Dong-A Ilbo, 1920 May 28;Sect. 03.
- A36. Pyeongan Daedong Office of Police arrest young man 13. The Dong-A Ilbo, 1925 June 3;Sect. 05.
- A37. Working girl aid society inaugural assembly. The Dong-A Ilbo, 1922 April 1;Sect. 07.
- A38. Kim KI. Communist-dominated organization in Seoul. In: Korean history of national liberation. Seoul: Youngjin Publishing; 1993, vol. 3, p. 146-163, Japanese.
- A39.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Seou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1978, vol. 10, p. 933-948.
- A40. Last 10 years and future 10 years. Samchuly. 1930;4:8-14.
- A41.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Jung-Sook Lee, In: Records of meritorious people in the independence. Seoul: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1990, vol. 7, p. 593-594.
- A42. Keunwoo promoters meeting. The Dong-A Ilbo, 1927 April 27;Sect. 03.
- A43. The executive committee of Keunwoo Pyongyang Branch. The Dong-A Ilbo, 1929 July 11;Sect. 05.
- A44. Han SG. Self-indulgence. Hyesung. 1931;1:45.
- A45. Arrest the executives of Daehankookminhoi. Korean Daily News, 1920 July 15;Sect. 03.